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공모 종료

- 총 1개 컨소시엄 참여, 기술·정책평가(10월) 후 금융심사(11~12월) 추진
- ‘AI 고속도로’의 핵심인 ‘국가 AI컴퓨팅 센터’ 가시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공모가 10월 21일(화) 오후 5시로 종료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가칭}삼성SDS 컨소시엄(부지: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1개가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기술·정책평가(10월)에서 공모신청자 및 사업참여계획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고, ^{2단계}금융심사(11~12월) 등을 통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민간참여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하여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GPU 1.5만장 이상을 확보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입지, 요금, 일정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국내 산·학·연에 대한 첨단 GPU 지원, 국산 AI반도체 도입 활성화, 글로벌 기업 협력 등 정책목표 달성 방안은 향후 확정된 민간참여자가 제시한 사업 참여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AI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하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 (AI컴퓨팅인프라팀)	책임자	팀 장	김광년	(044-202-6570)
		담당자	사무관 연구원	최동혁 강성임	(044-202-6571) (044-202-6574)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깨우는 디지털 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